

## 영양읍, 민·관·군 합동 집중방역 실시

### 시가지 중심지 상가 등 도로변 집중 방역 실시

영양읍 이장협의회 및 읍 예비군중대는 최근 영양군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영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군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양군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재 시가지 주요도로는 방역차량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은 인력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양읍 이장협의회 및 예비군 영양읍대에서는 영양군과 더불어 지난 2일부터 시가지 집중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에는 마을이장 29명이 4개 팀으로 구성해 첫날부터 순차적으로 관내 노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

독작업을 실시한다.

정취대 영양읍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영양군과 발 맞춰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영양읍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호 영양읍장은 “민관군이 협력해 방역지원을 하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영양읍에서는 모두가 협력해 주민 불편최소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관외 외출자제 및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통하여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2월 중순경부터 군청직원 및 읍직원들이 시가지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읍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 청송,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청송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의 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시들어 말게 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및 예찰조 사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과 더불어 3월 말까지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하고, 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예찰, 지상 정밀예찰, 소나무류 이동 단속조소 운영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깨끗하고 청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 포항시 음압기 구입, 포항의료원에 전달

### 확진자 음압병상 추가확보

포항시는 3일 이동형 음압기, 음압텐트 등을 긴급 구입해 포항의료원에 전달했다.

포항의료원은 지난 2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시에서 구입한 음압기 2개를 포함한 28개의 음압기를 본관병동에 추가 설치해 총 61개실의 음압병

실 운영을 통해 음압병상 부족을 해결하고 코로나19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외출할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혹은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해 조치사항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 포항시, 코로나19 관련 성금·품 채도

### 이틀 만 3억1천만원 담지

포항시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금 모금을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3억1천만원의 성금품을 모금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의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3일 시에서 개최된 성금품 전달식에는 ▲대구은행 경북본부 1억원 ▲지역건설업체인 삼구건설(주) 1억원 ▲포항시 산림조합 1천만원 등 전체 2억1천만원의 성금과 ▲포항버리회 1천만원 상당의 생수 1만병(500ml)이 전달됐으며, 시는 모금된 성금을 대한적십

자사 경북지사에 전달 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기업인, 금융인, 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 각계각층에서 성금모금에 적극 협조한 결과 현재까지 ▲성금(현금) 2억2백2천만원 ▲성품(현물) 8천8백만원 등 전체 3억1천만원의 성금품이 모였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의 조기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금모금에 적극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코로나19의 조기극복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본격화

## 70억6천만원 투입, 사업 육성 매진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포항시가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강소특구에 지정된 이후 12월에는 연구소기업 3개사가 설립됐고, 강소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포항시는 성공적인 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포항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은 70억6천만원(국비 58.6, 지방비 12)으로 ▲기술발굴 및 연계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

성사업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포항시는 ‘기술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발굴해 연계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과제를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사업화의 전 주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신소재 분야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강소형 기술창

업 육성사업’과 특화분야(바이오, 에너지, 나노 등) 기업의 성장지원으로 포항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포항을 강소특구 육성의 모범사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심의 공동수단 지원사업과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강소특구별 특화수단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공동 지원하는 세부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지원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특화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21일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소특구별 특화 지원 세부사업인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이노폴리스캐넥트사업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은 향후 기술핵심기관인 포스텍에서 별도로 공고해 사업신청 접수한다.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협약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연구 성과로만 머물러 있던 유망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설립되고, 기업이 성장해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포스코 오픈 연구소 홈페이지 (포스코 제공)

1,5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연말에 본인 희망에 따라 현금으로 받거나 기부할 수 있다.

오픈 연구소 운영을 책임지는 엄경근 연구기획그룹장은 “오픈 연구소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무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향후 오픈 연구소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사외 전문가를 연

계해 플랫폼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질문이 등록되면 전문가를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간단한 수준의 질문은 인공지능이 대신 답변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한 사내 기술연구원의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질문은 포스텍 교수진이나 RIST 연구원으로 연결해 지식공유 역할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 영덕 삼성연수원, 경증환자 입소

### 감염예방 위해 2중 통제 소조 설치, 마스크 지급

지난 2일 코로나19 대구 경증환자 수용 및 치료를 결정한 영덕군이 경증환자 입소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영덕 병곡면 영리에 위치한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 치료센터에 코로나19 대구 경증환자 210명이 4일부터 수용 및 치료를 받는다.

영덕군은 철저한 방역 및 통제, 의료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안과 대구 지역 경증환자 치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영덕군은 우선 3일부터 434세대 724명의 인근 주민들에게 손소독제 500개와 마스크 1천개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영리(1~4리), 병곡(1~2리) 주민들이다. 또, 방역소독기 10대도 영리 지역에 배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차량이 지나는 길에 방역소독도 3일 설치가 완료된다. 소조는 2곳 설치되는데 삼성연수원 입구에 1곳, 영리 입구 혹은 영4리 인터체인지 출입구 중 1곳에 설치 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경증환자가 입소하게 될 영덕연수원 운영계획도 마련됐다. 숙소동(A~G동)은 합동지원단과 경증확진자가 사용하게 된다. A와 B동은 합동지원단 숙소로, 나머지는 경증환자가 생활하게 된다. 숙소동 옆에 있는 교육동(A~B동)은 입소 기간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기존 영덕연수원 직원들은 숙소동과 떨어져 있는 부대동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눈에 띄는 점은 2중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우선, 방역소조가 설치되는 정문을 통해서만 영덕연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문을 통해 출입이 통제되고, 출입하는 차

## 울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제 총력

### 청정울진 위해 행정력 집중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제하고 군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현재 울진군에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 중인 인원은 130명이고, 신천지 교인 및 교육생은 명단 파악 후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군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9개 팀의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며, 시외버스터미널 9개소에 행정인력을 배치해 관외 대중교통 이용자의 행선지, 경유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내 7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이며 군민들에게는 감염지역 방문

및 집회·모임 등을 자제 해줄 것을 요청하여 바이러스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4일부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약국을 제외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시간을 오전 11시로 통일하고, 공급현황을 파악해 농협하나로마트 판매량은 전날 군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공식 채널에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우체국 판매의 경우 당일 공급량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당일 아침에 판매량을 공지한다.

한편, 지난 2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 해제됨에 따라 이동 조치됐던 요양병원 환자 17명에 대해 전원 입원을 조치 중에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련된 현황 및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 공식채널을 통해 자료를 공개,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찬길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청정울진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